

나의 성막 (출애굽기 26:31-37)

나의 성막이다. 사도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제 10차 자체캠프를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것도 축복이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사실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도와 선교에 참여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왜 나는 응답이 안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에게 중요하다. 응답 없으면 힘들고 증인 안되고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으로 두가지를 이야기 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이다.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의 요약물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으면 자꾸 누려진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난다. 그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237에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을 안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여기에 맞추면 응답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야.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응답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누림과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교회에 이런 전문 전도자들이 일어서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과 같은 조직을 갖춘 전문 전도자들이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하고 진짜로 가슴이 통한 중직자 정말 중요하다. 이 언약을 미래에 이어갈 참된 렘넌트 너무 중요하다. 이런 사명자들과 함께 전도에 전문적으로 답안 전문 전도자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캠프 기간을 통해 이런 전문 전도자가 계속 일어서기를 바란다.

1. 나의 성막

오늘 본문, 26장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도 성막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너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막은 전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다. 다른데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죄 용서함도 거기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일을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성막이 있냐 없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현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때는 평소보다 더욱욱 말씀 받아야 우리가 산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성막이 없으면 죽는다. 예배를 시험삼아 한달 중단해보면 금방 알게 된다. 만일 교회를 일년이나 이년 친구가 안나온다음 그 이후에 만나면 말 안통한다. 이상하게 되어 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10년간 예배를 안드렸는데, 그 후에 만나면 영 다른 곳에 가 있게 된다. 우리는 개인성막이 있어야 한다. 나의 그리스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가 깊이 개인화 되어, 개인적으로 내가 언약으로 잡고 고백할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성막이다. 일단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을 받아야지, 성막이 없으면 말씀을 받을 곳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다. 말씀도 없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백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한마디가 없으셨다. 그러니 선지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러니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뭐가 문제였나? 말씀이 없는 것이다. 심각한 것이다. 반대로 말씀을 잡으면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

성막이 없으면 만남이 없다. 말씀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만나도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만나가 뭐가 필요한가? 있을 이유가 없다. 반석에 물이 있을 이유가 있는가? 필요가 없다. 이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필요도 없다. 그러니 성막이 없으면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언약계, 그리스도이다. 그 위에 속죄소, 등잔, 진설병, 떡인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게 그 안에 있다.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그것은 죄를 씻고 들어가라는 의미이다. 성막 전체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막의 뜰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나그네를 위하여, 구원 받을 자를 위하여라는 뜻이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라는 뜻이다. 기도하는 장소, 그리스도의 문, 그게 뜰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되기 바란다. 개인 성막 있어야한다. 집에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나의 서밋시간

언약은 이미 완전하고 완성되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할 것이 없다. 완성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으실 필요도 없다. 영원하게 완성되었고, 다른 복음은 없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음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이 완성된 언약이 원죄와 저주에 대한 답이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데는 답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답이 필요하다.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당한 문제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답이라는 것과 매치가 안되서 이게 갈등이다. 만일 나는 돈이 문제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라고 생각되면 따로 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니 경제 문제에 대한 답도 이것이야, 내 피야 라고 말했는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무슨 피냐라고 하면 이게 사고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피가, 그리스도가 너희가 당한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잘 안생기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진짜인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하고, 메시지를 들은지 10, 20, 30년 상관없이 안 믿어지면 확인을 하기 바란다.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확인하기 바란다. 한번으로 확인 안되면 내일도 하고 계속 하라. 믿어질때까지 하라 듣고 끝내지 말고. 내게 믿음이 들어와서 내게 정체를 하지 않는한 들어도 소용없다. 알고는 있지만 역사를 안하는 말씀이다. 실제로는 필요없는 것이다. 맨날 듣고 지나가버렸다. 20년, 30년되어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안된다. 확인하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지. 확인되었으면 믿어야 한다. 믿어질 것이다. 당연히. 확인은 되었는데 믿음이 안 생길수도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보면 참 세밀하게 한 개 한 개씩 정말, 왜 이러십니까? 쪽쪽 나가지 이럴 때가 있다. 그런데 확인했는데 안 믿어질 수도 있다. 도대체 믿음이 왜 안생기나 할 때가 있다. 하긴 하는데. 기도해야 한다. 전쟁 붙어야 한다. 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단이다. 나도 아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사단이지. 전쟁붙어서 믿어야 한다. 안 믿어지면.. 믿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믿고만 있는게 아니라 잡아야 한다. 그것이 무기이다. 그걸로 자꾸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고 또 다시 고백하고 자꾸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 안해도 응답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이다. 너는 이것을 해야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방인이냐? 자꾸 다른것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 하면 돈생기냐? 돈 생긴다. 오히려 너는 경제 문제를 니가 해결하려고 하냐? 너는 이걸 가지고 해결하라는 말 아닌가? 지금 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니것이나? 니가 만들었냐? 은혜로 내가 준거 아니냐? 믿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서 돈을 버는가? 세상에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지. 맞는가? 세상을 내가 만들었냐? 내가 가서 일하면 돈 나오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아담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온 것이다. 그게 문화고 문명이다. 산업이고 기술이다. 그러면 결론은 내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내것으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딱 닫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로 다 해도 된다. 그러나 한발 양보해서 이걸 중심으로 한번이라도 하라. 렘넌트 7명은 이것 딱 하나 가지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이것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역사해주세요. 우리 렘넌트 청년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렘넌트 7명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버렸다. 이것을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는 것을 계속하면 내게 들어온 말씀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신기하게도 주신 말씀을 잡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게 된다. 문제 있어야 상관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나는 말씀을 잡고 고백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했는데 응답되어 버렸다. 놀라운 일이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온다. 나중에 결론은 니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시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은 환자를 데리고 온다. 예수님에게 안수 받으려고. 이 사람은 집에 있을 때부터 벌써 답 났다. 그래서 자기 하인은

집에 놔두고 자기 혼자 갔다. 예수님이 가자하니까 아니다 말씀만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네 하인 중풍병 나으라고 안했다. 니 믿음이 이루어질것이라고만 했는데 나온 것이다. 우리가 말씀만 잡으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응답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서밋시간이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실행에 옮겨보기 바란다. 이 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쓰기도 한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일 지키는 것을 보고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다. 지속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 틀림 없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 속에서 계속 응답이 오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야 응답이 있을 것 아닌가?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더 풍성한 꿀을 얻는 것이다. 문제가 왔는데도. 너무나 감사하고 신비하고 대단하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증인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날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하고 풍성한 것을 모든 분야에서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 한다. 그게 진리이다. 세상 기준해서 오늘 할 일을 계획하면 자꾸 옆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개인 영적 성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영적 만나 먹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 반석의 물 마셔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 등잔, 등불 있어야 한다. 영적 진설병 있어야 한다. 성막의 모든 물건이 몽땅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그 말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막은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하고 24시 그리스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서밋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고백, 각인, 선포,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전부 응답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것을 힘으로 얻고 가는 것이다. 이걸 안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응답 받아라 하면 종교이다. 이걸 안하고 전도를 많이 해봐라. 종교이다. 헌신이나 전도는 너무나 귀해서 처음에는 응답 좀 볼수 있다. 적당히 하고 말아야지, 만일 끝까지 그렇게 하면 영적 문제 오거나 무너지게 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중직자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없이 그걸 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문을 여실 것이다. 그때는 이것 때문에 응답이 왔으므로 100%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막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